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첫 선 ‘인산인해’

14일까지 남미륵사서 개최...관광자원 가치 증명 주민 운영 꽃동네 주막촌·봄꽃 힐링 카페테리아 ‘인기’

강진군이 올해 처음 선보인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의 화려한 개막으로 핑크빛 구름인파가 남미륵사에 물렸다. 강진군은 8일 “지난 6일 남미륵사 행사장에서 강진원 강진군수와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은 남미륵사 법흥주지스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이병삼 강진교육장, 김금수 군동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개막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커팅식 이후에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풍선날리기 행사로 축제장 일대는 200여개의 풍선이 하늘에 수놓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탐방로를 둘러보며, 이제 막 화를 시작한 서부해당화의 핑크빛 숲길을 걸었다.

축제 첫날임에도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며, 임시주차장까지 일찌감치 만차가 됐

만, 추가로 도로변 가장자리로 질서정연하게 주차 안내가 이뤄지며 우려했던 주차난은 발생하지 않았다.

축제장으로 들어선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꽃삼매경에 빠져, 가족, 친구 등 일행들과 함께 인생샷 찍기에 여념이 없었고, ‘봄꽃 힐링 카페테리아’에서 핑크빛 정원을 풍경 삼아 차 한잔의 여유를 갖기도 했다.

축제가 열리는 남미륵사는 서부해당화와 함께 한달 후면 만개할 1만 그루의 철쭉의 장관은 물론, 동양 최대 규모의 황동 아미타불 불상, 500 나한상 등 사찰의 아름다움으로 해마다 2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이미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증명해 왔다.

남미륵사 입구에 마련된 꽃동네 주막촌에는 군동면 출신의 ‘탐신사인 부녀회’에서 소박한 향토 음식으로 관광객



제1회 서부해당화 봄꽃축제가 지난 6일 남미륵사에서 개막한 가운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진군 제공〉

을 맞이했고, 군동면의용소방대는 탐방로 구간 안내를 맡았다. 봉산마을, 풍동마을 어르신들은 하루에 20명씩 환경

정비와 함께 마을 혼잡구간을 정리하는 등 지역민이 토틸 뭉쳐 성공 축제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진군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군의 공식적인 축제에 담고, 지역민의 참여 기회를 만들어 ‘축제-관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패키지’를 완성하기 위해 올해 10여개의 크고작은 축제와 행사를 개최한다.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은 “해마다 봄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남미륵사에 오지만, 지역민으로서 축제에 직접 참여할 방법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축제부터 군동면민은 물론, 강진군민이 주인인식을 갖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축제에 참여해, 주민들끼리 더 돈독해짐을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진원 군수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축제로 만들고, 축제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면, 바로 그것이 ‘대거 관광객 유입을 통한 강진의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라며 “서부해당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는 6일부터 14일까지 ‘핑크빛 봄의 미소’를 주제로, 9일간 관광객을 맞이한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군 ‘해양 치유’ 경영 대상 수상 영예

웰니스 해양관광도시 조성...지역 경제 활력 제고

완도군이 ‘2024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에서 해양치유 부문 대상을 수상해 해양치유산업의 입지를 독특하게 다지고 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더플리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 시상식의 도시 브랜드 경영 부문 ‘해양치유’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2024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 매경닷컴, 매경비즈가 주관하고 매일경제신문, M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식약처가 후원하며, 매년 뛰어난 경영전략과 성과를 보인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완도군은 해양치유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자세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9년전부터 육성해 왔다.

해양치유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완도군은 청정한 환경, 다양한 해양자원 등을 보유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으로 꼽히며 해양치유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군은 각종 해양치유 공공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16개 테라피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했다. 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현재까지 1만9천여명이 방문하면서 힐링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신우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은 완도로서 가능한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해양치유를 기반으로 완도를 웰니스 해양관광 도시와 우리나라 대표 치유의 섬으로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광 청년센터, 청년 심리 검사비 지원 확대

지원 가구수 확대·최대 30만원 지원금 제공

영광군 청년센터는 8일 “2024년 청년들의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 검사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가구수를 207가구에서 307가구로 확대하고,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30만원까지 제공한다. 이는 청년들의 심리 건강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뤄진 확대 조치다.

사업 목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18~45세)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신청 방법은 영광군 청년센터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신청으로 하면 되며 올해 12월 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예산 소진 시 종료)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 청년센터(061-501-2112)로 하면 된다.

박성문 영광군 청년센터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군, 자은도 피아노 포토존 설치

100+4 피아노섬 축제장서 파도·노을과 함께 인생샷

신안군은 8일 “100+4 피아노섬 축제가 열리는 자은도 양산해변에서 누구나 피아니스트가 돼 인생의 한 장면을 담을 수 있는 피아노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양산해변은 미세한 모래입자로 만들어진 넓은 모래사장, 시원한 파도소리,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뮤지엄파크가 접한 곳으로 천혜의 자연을 담은 군의 대표적 관광 명소다.

신안 대표 문화축제인 100+4섬 피아노섬 축제는 양산해변에서 오는 27~28일 개최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축제 기간에 방문해 피아노 104대가 전하는 감동을 느끼고, ‘그곳이 그림다’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찾아와 한 장의 사진에 추억과 감동을 담아 가길 바란다”며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세월호 10주기, 목포서 추모행사 열린다

한달간 추모기간 선포...기억식·지역전시회 개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거처되고 있는 목포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린다.

세월호잇지않기목포지역공동심천회의(이하 실천회의)는 8일 “오는 30일까지 세월호 10주기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기억식과 기억전시회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목포 원도심에 있는 갤러리 나무와 통갤러리 두 곳의 전시공간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목포와 전남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 37명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의 시대적 아픔과 희생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

다. 오는 13일 오후 4시16분에는 목포 평화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문화제’를 갖는다.

‘열린 재 봄, 기억하고 책임지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제에서는 세월호 그림엽서, 손수건, 무드 등 만들기 등의 예술체험을 식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시낭송, 남성 3중창, 청소년오케스트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추모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목포시민 304명이 참여해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을 한명씩 부르며 거대한 리본을 완성하는 퍼포먼스 ‘이름을 불러주세요’를 진행한다.

매년 세월호 선체 앞에서 열리는 목포기억식은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희생자를 위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기억사, 추모사, 음악공연, 선언문 낭독, 헌화의 순서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번 기억식에는 ‘0416재단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의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세월호 10주기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3회 416 생명과 안전 전남청소년 작품모집전’도 열린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전남도교육청 갤러리 이음과 갤러리 나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박현숙 실천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국가가 밝히지 못한 진실을 다시 찾아 나서는 출발점으로 삼아 진상규명 활동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100일 삼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청춘마을 그린리더’ 사업 실시

ESG 기반 사업 리사이클링 제품 제조·판매

함평군은 8일 “함평군노인복지관에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형 신규 사업단으로 ‘청춘마을 그린리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13명의 그린리더로 구성, 폐현수막 가공과 양말목 냄비 받침, 손뜨개 수세미 등 친환경 제품을 제작(사진)

해 판매한다. 또한 제2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안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손수 제작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해 깨끗한 함평 만들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윤하 함평군노인복지관 관장은 “리사이클링 제품 제조·판매를 통해 탄소중립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전남권 의대, 목포대에 설립 결단해야”

무안군의회, 전남 의대 공모 방식 철회 요구

무안군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권 의대 유치 문제와 관련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도민 담화를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기존 ‘통합의대 신설’ 방안에서 ‘단독의대 신설’로 추진 방침을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무안군의회는 “전남 의대 설립을 공모로 추진하겠다는 이번 전남도의 결

정은 도민 화합과 상생 발전을 바라는 전남 서부권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며 “공모 방식에서의 전환은 전남도가 당장의 정치적 부담만을 면하기 위한 공여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안군의회는 “공감대 없는 의대 설립 방침 변경은 의대 유치를 두고 동서로 양분된 지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의 원칙을 심

각하게 훼손시키고, 전남도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포대 의대 설립은 정부의 응급의료 분야 핵심 국경과제인 ‘지역 간격적 필수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검증된 정책적 타당성, 지역민의 의지 등이 이미 제반 여건이 성숙됐다”며 “지금이라도 공모 방침을 철회하고 전남 서부권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 지을 것을 전남도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될 때까지 지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무안=김상호 기자